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춤 통해 유토피아를 꿈꾸다 '황은아' 무용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대무용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라인댄스로 전라북도에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무용과 라인댄스를 접목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용의 매력은?

제가 생각하는 모토는 이렇습니다.

혼자서도 둘이서도, 여럿도 가능한 것은 춤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현대무용을 하면서 사실 제가 엄청 춤을 잘 추는 테크닉이 좋은 사람이 아녜습니다.

그런데 제가 춤을 통해서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게 아이디어가 되어서 여럿이 함께할 수 있고 누구나 함께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술극장 초연은?

처음에는 연습실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싶냐고 이야기했을 때 춤추고 싶다고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는 공연 연습장 사용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고 싶은데,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에 내려와서도 활동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또 공연장을 대관하는 그 자체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들을 표현할 수 기회들을 만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문화대장간 초연은?

대장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광로 속에 쓸모없는 재료들이 담겨져서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새롭게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지금 노인분들에 대한 어려운 현실이 많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변화하는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공간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고 속에서 새롭게 재탄생하듯 노인분들이 새로운 삶을 갖고 문화예술로서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서 다시 행복한 삶을 갖게 하자.

초연이 완주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흥이 있습니다. 그 흥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고, 대부분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완주에서 활동했습니다. 장파마을에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허리도 아프고, 쭈그려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에게 생활 속에서 춤을 추게 하고, 운동도 되게 하면서 튼튼하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춤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춤은 무엇이나? 마을에서 밭에서 농사 지으면서도 할 수 있는 춤! 마트에 가서도 음악이 나오면 춤출 수 있는 춤!

우리가 플래시몹 이야기하듯이 어떤 한 동작 두 동작이 완주지역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춤을 만들어

서 다 같이 천안에 흥타령이 있는 것처럼 다 함께 놀아보자는 라는 생각으로 “한판 노세!”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나 묻는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춤을 통해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